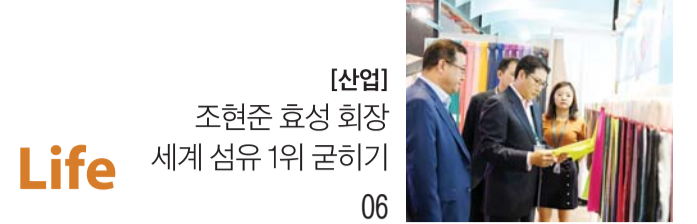




[금융] 김지완 BNK금융 회장 지역은행 넘어 '글로벌' 04



1 한화손보 성남지역단이 서현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 탐승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 한화손보가 서울 용산서방사에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용산구 주민을 방문해 구호물품과 임시주거비를 지원했다. 3 한화손보 대구지역 임직원 및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봉사자들이 대구 동구 지역의 재난위기가정에 방문해 구호물품 전달과 벽지, 바닥, 방충망 등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4 한화손해보험 2017년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경로당을 찾아 'DIY 가구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손보

재난위기 가정 돕고 안전교육도 꼼꼼하게 소외계층 보듬는 35개 봉사단 “보험은 안전&사랑 실천”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손보사의 역할에 맞는 사회공헌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한화손보의 주요상품인 자동차·화재·주택보험 등에 맞게 '집짓기 봉사활동'이나 '대학생 안전운전 체험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안전365'를 실시하고 있는 것. 특히 한화손보는 전국에 35개의 봉사단을 구성, 지역단별 1개 이상의 기관과 연간 협약을 체결해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한화손보는 영업가족과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난봉사단을 구성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학생봉사단원들과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대전·대구·부산 등의 지방권역에는 '재난위기가정 환경개선' 활동을, 서울시에는 '화재피해가정 지원사업'으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내 저소득 주민과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4월 한화손보 재난봉사단 25명은 대학생 봉사단 65명과 함께 대전광역시 동구청이 추천한 재난위기 가정 9개 가구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9월에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재난위기 가정 9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방충망 교체 작업등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봉사단원은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해 집수리 자원 봉사자와 함께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열감지 화재경보기도 설치했다.

자동차 안전·화재·주거공간 등 손보사 역할 맞는 사회공헌 펼쳐

침수 등 재난 노출된 가정 집수리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진행 대학생 위한 바른 운전습관 교육

경로당 방문해 가구 조립 돕고 저소득층 어르신 위해 밥차 운영

한화손보 재난봉사단은 재난현장에서 잔존물 제거 및 청소, 기초생활품 지원, 재해 현장의 안정화를 위한 각종 지원 활동과 재난 현장에서의 보상처리 방법, 잔존물 처리방법 안내 및 건강상담 등의 봉사활동 등 역할을 담당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회사는 손해보험이란 업의 본질에 맞춰 2015년 광역시 재난위기 가정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역사회의 재난 피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학생까지 폭넓은 안전교육

국내 교통사고 사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어린이다. 한화손보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먼저 한화손보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안전체험 한마당'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체험중심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이 행사는 올해로 12회째다.

지난해 4월에 실시된 '2017서울안전체험 한마당'에서는 재난안전을 비롯해 화재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어울림

등 6개 테마 8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한화손보의 특화사업으로 손꼽히는 '어린이 안전교육 안전365'는 국제 어린이 안전기구인 세이프키즈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한화손보는 안산 조은지역아동센터와 서울 쎄마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함께 안전365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아이들은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과 전북 119안전체험관을 방문했다.

안전체험관에서는 실제 소방관의 교육을 받아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과 같은 재난을 체험하고 4D 애니메이션 관람을 통해 화재 발생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배웠다. 아이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재난대피를 해보며 그동안 이론으로 배웠던 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대학생을 위한 안전교육도 진행된다. 한화손보는 면허를 처음 취득한 대학생에게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에 대한 실습교육으로 국민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키우겠다는 취지의 사회공헌 활동인 '세이프드라이빙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차도리와 함께하는 세이프드라이빙챌린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차량 특성의 이해와 일상 점검 요령 ▲타이어의 이해 ▲올바른 운전자세 등 이론 교육 등 안전운전 기술을 다지는 체험 교육으로 구성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최근 렌터카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1~30세 초보 면허 대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31.4%에 이른다. 또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 초보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초보면허를 취득한 대학생들이

기본에 충실한 올바른 운전습관을 몸에 익혀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표부터 신입직원까지 봉사활동

한화손보는 지난 2005년부터 '사회공헌 운영지침'을 내규화하고 유급자원봉사제도·휴가 제도·우수자원봉사자 시상제도를 마련해 임직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지난 1월 한화손보에 입사한 신입사원 29명은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경로당 다섯 군데를 방문해 'DIY 가구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발장, 서랍장, 식탁 세트 등 총 8조를 조립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한화손보 박윤식 사장은 단장으로 전국에 38개의 봉사단을 구성해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한화손보 박 사장은 소비자평가단, 임직원봉사단 50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밥차' 무료 급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마련한 이 행사에서 한화손보 소비자평가단과 임직원은 밥과 국, 꼬치전, 부추잡채, 편육, 수정과 등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든 후 회사에서 준비한 밥차를 이용해 지역 어르신에게 제공했다. 소비자평가단은 매년 1회 대표이사과 함께 사회공헌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직원은 모금한 후원금에 비례해 그 금액의 150%를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모금제도를 도입해 사회공헌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